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5.14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21.45원 (+19.05원)

KOSPI

2,608.42 (+1.09, +0.04%)

KOSDAQ

731.88(+6.48, +0.89%)

국고채 10년 금리

2.722(+0.037%p)

Special Report

2025년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	힘의 이동 (분산 투자하기 좋은 날) [이영주]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Loser's game의 생존 전략 [전규연]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박승진]
NEW K-ETF	테슬라 + 미국테크, 팔란티어 + 미국테크 [박승진]
NEW K-ETF	미국 배당 퀄리티: 주식형, + 채권혼합형, + 커버드콜 [박승진]

기업분석

CJ제일제당 [하향]	1Q25 Re: 시장 기대 하회 [심은주]
포스코퓨처엠 [하향]	광물 적격 요건 강화 대비한 투자 [김현수]
롯데케미칼	2Q25 정기보수 반영. 3Q25 흑자전환 기대 [윤재성]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수혜 실적으로 증명 [최재호]
바이오에프디엔씨	스킨부스터로 다진 체력, 패치와 PDRN으로 넓히는 외형 [권태우]

산업분석

2차전지	AMPC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 [김현수]

글로벌리서치

토요타	FY2026 가이던스 영업이익 -21% 하향 [송선재]
닛산식품 홀딩스	1Q25 Re: 시장 기대치 부합 [심은주]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신한지주, 이마트, SK가스, 계룡건설, 실리콘투, 와이지엔터, 쏠리드, 디오, CJ프레시웨이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5년 5월 14일 | Global Asset Research

2025년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

힘의 이동 (분산 투자하기 좋은 날)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기회

- 무역 대립 완화 중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불균형 리밸런싱" 목표는 변화 없음. 美 정책 불확실성에 미국 예외주의 기대는 축소. 높아진 분산투자 수요
- 약달러 현상 또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목표이나, 한편으로는 투자자들 불안심리를 투영
- 미국과 非 미국 간 경제 여건 차별화는 국가 간 성장 갭을 축소하고, 글로벌 주요국 통화 자산 매력도를 높임

1) 미 재정 축소 Vs. 글로벌 주요국 재정 확대 ▷ 성장 갭 축소
2) 미 인플레 단기 압력 Vs. 주요국 인플레 압력 완화 ▷ 주요국 통화완화 기조 뒷받침
3) 달러 약세 Vs. 상대국 통화 강세 ▷ 미국 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유도
4) 미국 대비 정책 방향성 뚜렷한 미국 외 시장 매력 확대 (유럽/영국/아시아 등 기회)

-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빠른 달러자산 재조정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다각화 가속화 전망
- 지정학 및 자원은 미래 갈등의 원천. 원자재/금/희소 자원 가치 상승은 수요 확대와 통화 팽창 측면에서 유효
- 美, 민간투자 역할 강조. 기업의 투자/운영/롤오버 목적 부채 부담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가 ▷ ABS/사모대출 시장 성장

미국, 야심과 의도된 경기 둔화

- 美 정부의 "글로벌 불균형 리밸런싱" 목표는 변화 없으나, 오랜 시간 형성된 패러다임의 교체 위해 경제 펀더멘털 둔화 감내할 것
- 역사적으로 (플라자/루브르 합의) 관세와 환율만으로 무역적자 해소는 어려울 것.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미국의 요구가 간헐적 등장 가능성
- 미국의 약점인 정부 부채 부담과 국채 수요 불안은 베센트 풋이 낮춰줄 전망 (SLR 규제 완화, 연준 유동성 창구 재활용, 스테이블 코인)
- 국가 신뢰도에 대한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美 기업 성장 기대는 여전. 하반기 정책 초점이 감세/규제완화로 확대될 것. 긍정적 기업 여건이 경기 하방 위험 제한할 전망

유럽, 잠을 깨고 부활

- 점진적 국채금리 상승과 유로화 강세는 유럽 투자 매력도 우상향 요인. 재정/방위/안보 전략 전환에 따른 직접적 수혜 예상 산업 중심으로 기회 포착
- 미국과의 격차 축소 준비 가운데, 26년 재정 확대 본격화 기대하며 하반기 조심스러운 펀더멘털 회복 기대. 무역 마찰과 현실적 재정 공백은 ECB 금리 인하가 채울 것
- EU의 ReArm Initiative와 독일 국방/인프라 투자 결정은 성장 발판의 구체적 근거

내공의 중국

- 미 제재에도 불구, 첨단 산업 경쟁력 입증. 특히 5개 주력 산업 투자 이어갈 전망 (반도체, Big Data/5G, 신재생에너지, AI/Robo, EVs)
- 트럼프 1기 경험에서 비롯된 신중한 대응 자세 확인. 외인 투자 유치 위한 안정적 환율 관리 추구 가능성. 단, 미중 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강세 여지
- 그럼에도 주요국 통화의 상대적 강세 활용해 수출 경로 다각화 추구. 아세안 지역 내 파트너십 강화 노력 지속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형민 hyeongmin.ha@hanafn.com

2025년 5월 14일 | In-Depth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Loser's game의 생존 전략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RA 김형균 hyungkyunkim@hanafn.com

관세전쟁, 승자가 있을 것인가?

무역분쟁의 지역 다각화로 인해 시선이 전세계로 분산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통해 원하는 본질은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 및 중국 중심 공급망 약화,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 충당 등은 부차적인 이유다. 각국의 무역협상은 사실 미-중-제3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자간 협상이지만, 미국은 이를 양자간 협상으로 분리해 중국과 제3국의 연대 형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 측면에서 미국이 협상의 우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 인상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압력도 동반 확대되고 있다. 과도한 경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미, 중 양국은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 관세율을 각각 30%, 10%로 낮췄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실효관세율은 큰 폭으로 높으며, 이로 인한 경기 둔화와 교역량 감소 흐름은 불가피하다. 관세 충격이 공급 측으로 나타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수요 측으로 나타나는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여부가 하반기 미국 경제의 경로를 좌우할 것이다. 무역협상이 단기에 마무리되고 관세 발 물가 상승이 최종재 위주로 나타날 경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무역협상이 장기화되고 중간재 가격 전가가 심화된다면 역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하나증권은 현재 미국의 [경기 둔화, 일시적 물가 상승] 경로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다.

트럼프에게 남은 카드가 가져올 결과

지나친 관세 전쟁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는 감세안 연장과 부채한도 상향을 포함한 예산안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부채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로 지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8~9월 중 디폴트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집권 1기 때 시행된 감세안 중 개인소득세가 연말 만료될 예정인데, 감세안 연장 실패 시 납세자 62%의 세금이 즉각적으로 인상돼 부담이 상존한다. 감세안 연장은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일부 상쇄해줄 것이나, 감세안 중 법인세 인하는 이미 영구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집권 1기 대비 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불법 입국자가 급감했다. 치안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인 근원이 이민자 증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의 상승 흐름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 중립금리 이상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은 공급측 물가 상승을 조절할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다. 금리 인하 타이밍은 고용 둔화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빈 일자리가 3~4개월 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 연준은 올해 7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

미 달러 약세와 외환시장의 판도 변화

상대국을 관세와 안보로 위협해 미 국채를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며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러라고 협정은 외환 개입과 각국의 정책 협조를 요하는데, 외환시장은 85년 플라자 합의 때보다 훨씬 복잡해졌으며, 미국채 외국인 자금의 절반 이상을 민간 부문이 보유하고 있어 강제적 조정이 어렵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부펀드 등 대체 수단 활용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의 약세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더 이상 미국 예외주의가 지속되지 않고, 유럽을 필두로 주요국의 재정 대응 여력이 높아지고 있어 마러라고 협정까지 동원되지 않더라도 미 달러는 연말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 선진통화 대비 미 달러의 약세 폭은 두드러질 것이며, 신흥통화 대비 미 달러 약세 폭은 완만할 것이다. 미국의 우방국이며 어느 정도 경기 방어력이 있는 선진통화와 무역분쟁의 여파가 크고 협상력이 낮은 신흥통화의 체급 차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도 미 달러 약세에 연동되며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하락 속도는 더딜 공산이 크다. 미 달러 약세와 한-미 무역협상에서의 통화 절상 요구 가능성 등은 원화의 강세 요인이나, 관세 발 한국 수출 타격 등 취약한 국내 경기 펀더멘털이 원화 강세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분기 평균 달러-원 환율은 2Q 1,400원 – 3Q 1,380원 – 4Q 1,360원으로 연평균 1,398원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 이미 부진한 내수에 더해지는 악재

2025년 한국 경제는 연간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2분기부터 트럼프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눈높이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국내 수출 둔화 폭은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미 수출은 이미 전년비 감소 전환했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분기별 성장 경로는 상저하고로 예상하는데, 이는 기저효과와 하반기 반도체 수출 단가 사이클 반등으로 인한 수출 개선 영향이 주요하다. 금년 5월 국회를 통과한 13.8조 규모의 추경은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되며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지만, 정치적 혼란, 산불 확산 등 예외적 변수들이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을 추가로 높였던 만큼 금번 추경은 경기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에 그칠 듯 하다. 6월 대선 이후 2차 추경 집행 여부와 추경 규모가 연간 1% 성장률 달성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지난 2009년~2019년 한국 정부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종합해보면 GDP 대비 1% 규모의 재정지출은 한국 성장률을 평균 0.33%p 높였다.

2025년 5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황수미 shwang@hanafn.com

신규 상장 예정 ETF(5/13)
- KODEX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KODEX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KODEX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미국의 초단기 국채, 초단기 금리로 구성된 비교지수를 추종하는 액티브 ETF이다. 불확실성 국면에서 단기 유동자금, 혹은 여유자금 중심의 수요를 소화하는 대표적인 카테고리 중 하나가 되겠다. 안전자산 성격을 가진 단기자금 시장에 투자하면서도, 미국의 초단기 국채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비교지수인 'KAP 미국 머니마켓 지수'는 잔존만기가 1개월~3개월인 미국 단기 국채(T-Bill)와 1주일 Repo 금리, SOFR(무위험 지표금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Bill은 60%, 미국 1주일 Repo 금리가 30%, SOFR에 대해서는 10%의 비중을 할당한다.

투자 대상은 A- 등급 이상의 우량 기업으로 한정하며, 0.1~0.3년 수준의 초단기 듀레이션을 목표로 한다. 머니마켓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금리수익을 활용하여 매월 분배금 지급을 추구하는 월배당 형태의 미국 초단기 금리 ETF이다. 원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구조인 만큼 달러 투자의 수단으로도 고려될 수 있겠다. 총 보수는 0.05%가 적용된다.

KODEX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테마 ETF이다. 본사 소재지가 중국인 기업들을 편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 기업 20개들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종목이 되겠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기술 우위의 포지션 선점을 추구하고 있다면, 중국 기업들은 신속한 보급과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선점(양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AI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 이후 중국 정부가 기술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더욱 큰 관심(중국의 전기차 사례 참고)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겠다. 시장에서도 중국의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기업들부터 핵심 부품 기업들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 기업군 전반의 실질적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동성 조건(시가총액 규모, 평균 거래대금 등)을 충족하는 동시에 산업분류체계(RBICS) 분류상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종목들을 편입 가능 유니버스로 하고,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인 ARTIS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 제조 및 공급 기업들 가운데 키워드 스코어가 높은 20개 종목을 추려낸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키워드 스코어링 가중 방식 30%,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70%의 기준을 조합하여 배분한다. 개별 종목에 대한 10%의 Cap Rate이 적용되며, 매년 4회(2/5/8/11월)에 걸쳐 종목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총 보수는 0.45%이다.

2025년 5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테슬라 + 미국테크, 팔란티어 + 미국테크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예정 ETF(5/13)
- RISE 테슬라 고정 테크100, RISE 팔란티어 고정 테크100

RISE 테슬라 고정 테크100: 테슬라와 미국 주요 기술주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이다. ETF의 총 자산 규모 중 25%는 개별 종목인 미국 테슬라 주식에 할당하고, 나머지 75%의 경우 미국의 주요 기술주 종목들을 편입하여 구성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혁신기업의 비중을 높인 기술주 포트폴리오 구성 효과를 통하여 시장 대표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개별 종목 투자 사례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반영된 종목이다.

'RISE 테슬라 고정 테크100 ETF'는 테슬라 주식과 하위지수인 'KEDI 미국 테크100 지수'를 조합한 'KEDI 테슬라 고정 테크100'을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KEDI 미국 테크100 지수'의 경우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업, IT, 과학 및 기술 관련 기업들을 편입 가능 유니버스로 선정한 후, 유동시가총액 순위와 성장점수(최근 3년 매출총이익 성장률)를 각각 80%, 20%의 가중치로 계산 및 반영하여 최종 스코어 상위 100개 종목을 지수 구성 종목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슬라 개별 종목 비중을 25%로 반영하고, 나머지 75% 비중의 경우 'KEDI 미국 테크100 지수'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후 조정 비중을 산출하여 최종 편입 비중을 결정한다. 테슬라의 비중이 5영업일 연속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이 되는 날의 미국 장 마감 후, 혹은 지수 산출 이후에 테슬라의 비중을 25%로 조정한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진행되며, 총 보수는 0.20%이다.

RISE 팔란티어 고정 테크100: 팔란티어와 미국 주요 기술주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이다. ETF의 총 자산 규모 중 25%는 개별 종목인 미국 팔란티어 주식에 할당하고, 나머지 75%의 경우 미국의 주요 기술주 종목들을 편입하여 구성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RISE 테슬라 고정 테크100 ETF'와 동일한 구조의 종목으로, 혁신기업의 비중을 높인 기술주 포트폴리오 구성 효과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추구한다.

'RISE 팔란티어 고정 테크100 ETF' 역시 팔란티어 주식과 하위지수인 'KEDI 미국 테크100 지수'를 조합한 'KEDI 팔란티어 고정 테크100'을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RISE 테슬라 고정 테크100 ETF'와 개별 종목만 바뀐 구조로, 팔란티어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25%의 비중을 할당하고, 나머지 75%는 'KEDI 미국 테크100 지수'에서 팔란티어를 제외한 후 조정 비중을 산출하여 최종 편입 비중을 확정한다. 마찬가지로 팔란티어의 비중이 5영업일 연속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이 되는 날의 미국 장 마감 후, 혹은 지수 산출 이후에 팔란티어 비중을 25%로 조정한다. 정기 리밸런싱도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진행되며, 총 보수는 0.20%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황수미 shwang@hanafn.com

2025년 5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미국 배당 퀄리티: 주식형, + 채권혼합형, + 커버드콜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황수미 shwang@hanafn.com

신규 상장 ETF(5/13): ACE 미국배당 퀄리티, ACE 미국배당 퀄리티 채권혼합50, ACE 미국배당 퀄리티 + 커버드콜 액티브

ACE 미국배당 퀄리티: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퀄리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이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도 과거 이익 퀄리티가 우수하고, 이익 성장 전망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이익 창출 능력을 중요한 종목 선정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에 자산 가치를 키워가며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ACE 미국배당 퀄리티'는 미국 상장 ETF인 DGRW와 동일한 기초지수(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Index)를 추종한다. 지난 1년간 정기적인 현금 배당이 지급된 기업들 중 주가대비 이익률(EPS/주가)이 배당수익률(DPS/주가)보다 큰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선정하고, 1) 3년 이익성장률 전망치: 50%, 2) 과거 3년 평균 ROE: 25%, 3) 과거 3년 평균 ROA: 25%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가중치 반영 스코어링 프로세스를 걸쳐 상위 30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으로 추려낸다.

SCHD의 기초지수인 'Dow Jones US Dividend 100 Index'가 '현재의 안정적인 배당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라면,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Index'는 '미래의 배당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형태의 배당주 ETF를 구성한다.

개별 기업의 편입 비중은 8%의 Cap Rate과 함께 향후 1년 예상 배당 규모(발행주식수 반영한 총 배당 예상금액) 기준의 배당금 가중방식을 통해 결정된다. 매년 12월마다 정기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총 보수는 0.15%이다.

ACE 미국배당 퀄리티 채권혼합50: 상기 'ACE 미국배당 퀄리티'의 포트폴리오와 한국 국채·통안채를 함께 편입하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이다. 미국 퀄리티 배당주들을 50%, 잔존만기 2년 미만의 한국 국채와 통안채 포트폴리오(듀레이션 목표: 0.5년)를 50%의 비중으로 편입하여 구성하는 ETF 종목이 되겠다.

한국 단기 채권들을 함께 활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이다.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발행잔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신용등급은 BBB- 이상인 국고채(잔존만기 1개월~2년), 통화안정증권(잔존만기 1~2년) 중 이표채를 편입 대상으로 한다.

주식과 채권 종목군의 50 대 50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작업은 매일 진행되며, 배당주 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의 편입 종목 리밸런싱은 각각 매년(주식: 12월), 매월(채권: 마지막 영업일)마다 시행한다. 총 보수는 0.15%가 적용된다.

ACE 미국배당 퀄리티 + 커버드콜 액티브: 'ACE 미국배당 퀄리티'의 포트폴리오와 미국 대형주 커버드콜 ETF로 구성된 액티브 ETF이다. 비교지수인 'Bloomberg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 B500 Premium Decrement 50:50 Index'는 미국 퀄리티 배당주들을 50%의 비중으로 편입하고, 미국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500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포지션(SPY 콜옵션 활용)을 50%의 비중으로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배당주와 커버드콜 포지션을 함께 가져가는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에 집중하는 ETF가 되겠다. 상관계수 0.7의 기준이 적용되는 액티브 ETF로, 상장일 현재(5/13)의 포트폴리오는 '미국배당 퀄리티 주식' 40%, 'ACE 미국500 데일리 타겟커버드콜(합성) ETF' 20%, 'JEPI ETF' 20%, 'JEPQ ETF' 2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보수는 0.15%이다.

2024년 05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CJ제일제당 (097950)

1Q25 Re: 시장 기대 하회

BUY (유지)

목표주가(12M)	380,000원(하향)
현재주가(5.13)	23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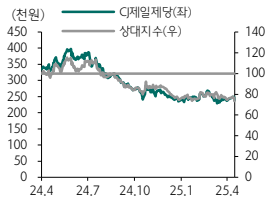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608.42
52주 최고/최저(원)	398,000/228,500
시가총액(십억원)	3,590.4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15,054.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4.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0
외국인지분율(%)	22.14
주요주주 지분율(%)	
CJ 외 8 인	45.51
국민연금공단	11.6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0,315.8	31,380.2
영업이익(십억원)	1,604.1	1,758.4
순이익(십억원)	798.1	940.0
EPS(원)	31,560	37,516
BPS(원)	520,180	561,59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9,023.5	29,359.1	30,033.6	31,084.8
영업이익	1,291.6	1,553.0	1,642.6	1,771.8
세전이익	732.0	610.5	1,023.6	1,199.0
순이익	385.9	148.2	500.2	588.3
EPS	23,559	9,046	30,534	35,914
증감율	(35.24)	(61.60)	237.54	17.62
PER	13.75	28.24	8.14	6.92
PBR	0.73	0.53	0.49	0.46
EV/EBITDA	6.77	5.98	5.63	5.23
ROE	5.55	1.97	6.20	6.91
BPS	442,682	486,140	510,801	540,842
DPS	5,500	6,000	6,000	6,0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5 Re: 국내외 식품 수익성 하락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조 2,085억원(YoY -0.1%), 3,332억원(YoY -11.4%)을 시현했다. 물류 제외한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3,625억원(YoY -1.8%), 2,463억원(YoY -7.8%)을 기록했다. 시장 기대를 하회한 수치이다. ① 명절 시점 차이 및 내수 소비 부진 기인한 경쟁 강도 심화, ② 미국 토네이도에 따른 일부 라인(디저트) 가동 차질, ③ 트립토판 등 상대적 고마진 아미노산 전략적 판가 인하 영향이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① 국내 가공 매출은 YoY -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 거래 재개 기인해 온라인 채널은 유의미한 성장(YoY 33%)을 시현했으나, 오프라인 채널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 탑라인 감소로 영업마진도 YoY 3%p 내외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해외 가공 매출은 YoY 8% 증가했다. 고환율 기인해 미주 매출은 디저트 라인 가동 차질에도 불구하고 YoY 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이외 지역은 유럽 및 호주가 각각 YoY 36%, 2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미주의 생산 차질 기인한 고정비 증가로 영업마진은 YoY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바이오 사업부는 825억원 이익 기여를 시현했다. 유럽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과세 부과 기인해 라이신의 이익 기여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트립토판의 전략적 판가 인하가 이를 일부 상쇄했다. '셀렉타'도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④ 생물자원(Feed&Care)은 베트남 돈가 회복으로 351억원 이익 기여를 시현했다.

2Q25 Pre: 사측, 탑라인 YoY low to mid, OPM 6% 내외 제시

사측은 대통 제외 탑라인 YoY low to mid single, OPM 6% 내외를 전망했다. ① 국내 식품 원가 부담은 환율 안정화 및 곡물가 약세 기인해 제한적인 가운데, ② 온라인 채널 침투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③ 미주는 토네이도 영향을 받았던 디저트 라인 생산이 5월부터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④ 바이오는 생산 기지 다변화를 활용해 라이신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 재편 무산된 점은 아쉬워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8배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하나증권은 그동안 중장기 측면에서 '식품'으로의 사업 개편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바이오 부문' 및 '셀렉타' 매각이 모두 무산된 현 상황에서, ① 국내 식품의 수익성 회복 및 ② 미주의 '만두' 이외 카테고리의 유의미한 매출 증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③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소통도 필요해 보인다. 목표주가는 추정치 및 멀티플 조정으로 기존 42만원에서 38만원으로 하향한다.

2025년 05월 14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포스코퓨처엠 (003670)

광물 적격 요건 강화 대비한 투자

Neutral (유지)

목표주가(12M) 124,000원(하향)
현재주가(5.13) 120,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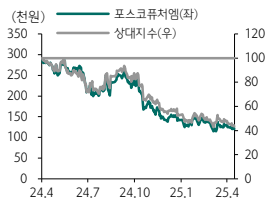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608.42
52주 최고/최저(원)	286,000/114,500
시가총액(십억원)	9,303.3
시가총액비중(%)	0.43
발행주식수(천주)	77,463.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79.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0.8
외국인지분율(%)	9.47
주요주주 지분율(%)	
포스코홀딩스 외 4 인	62.54
국민연금공단	5.5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816.9	4,892.8
영업이익(십억원)	83.4	199.7
순이익(십억원)	50.3	130.7
EPS(원)	670	1,614
BPS(원)	37,900	39,87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759.9	3,699.9	4,022.8	5,519.1
영업이익	35.9	0.7	70.1	208.1
세전이익	(16.1)	(431.9)	160.0	260.8
순이익	28.7	(212.3)	124.9	199.3
EPS	371	(2,741)	1,612	2,573
증감율	(75.70)	적전	흑전	59.62
PER	967.65	(51.84)	74.50	46.68
PBR	11.80	3.70	3.00	2.82
EV/EBITDA	176.17	77.12	44.99	26.48
ROE	1.19	(7.98)	4.12	6.24
BPS	30,412	38,391	40,003	42,576
DPS	250	0	0	0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유상 증자 개요

포스코퓨처엠이 약 1.1조원(5월 13일 현재 시총 9.3조원)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유럽 및 미국의 소재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총 1,148만 주의 신주를 발행, 모집가액은 주당 95,800원(5월 13일 현재 주가 120,100원) 이다. 이번 자금은 양극재의 광물 적격 요건 충족 위한 전구체 공장 운영(2,884억원), 캐나다 양극재 시설 투자(3,534억원), 국내 흑연 시설 투자(2,773억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두가지 함의

이번 유증은 두가지 함의가 있다. 1) 마지막 대규모 증설 :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제 투자 계획 제시했던 2023년과 달리, 최근 CFO 및 회사 측 코멘트를 살펴보면, 향후 시설 투자는 시장 수요 확인될 때 집행하겠다는 스탠스로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 이번 증설을 통해 30.5만톤의 양극재 CAPA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시장 수요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0년 북미 및 유럽 양극재 전체 수요 133만톤 및 한국 침투 가능 수요 73만톤(하나증권 배터리 수급 모델)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전략 스탠스 및 양극재 수급 상황 고려할 때, 이번 증설 이후 추가 시설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집행은 최소 3년간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유휴 CAPA 가동률 상승 : 현재 양극재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물 조달처다. 미국 OEM들은 전기차 보조금 및 AMPC(생산 보조금) 때문에, 유럽 OEM들은 CRMA(핵심원자재법, 2030년까지 주요 광물 소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 65% 이하 요구) 때문에 배터리 및 양극재 기업들에게 광물 적격 요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양극재 광물 적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구체의 한국 공장 운영을 원활히하고 202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는 음극재(흑연) 증설 자금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양극재 및 음극재 유휴 CAPA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희석 고려해 목표주가 하향하나 투자의견 중립 유지

이번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성장 가시성 확보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성장세를 반영한 2027년 예상 지배주주순익 및 Target P/E 46배(최근 3년 평균 24M Fwd P/E) 적용 시 도출되는 기업가치는 11.4조원이며, 최대 CAPA인 30.5만톤을 반영한 장기 Valuation(Target P/E 20배) 시 도출되는 기업가치는 12조원이다. 한중일 양극재 기업들 중 미국과 유럽이 요구하는 광물 적격 요건 경쟁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상기한 11조원~12조원 기업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목표주가는 발행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 고려해 124,000원으로 하향하나 상기한 기업가치 달성 가시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2025년 05월 14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롯데케미칼 (011170)

2Q25 정기보수 반영. 3Q25 흑자전환 기대

Neutral (유지)

목표주가(12M)	75,000원
현재주가(5.13)	6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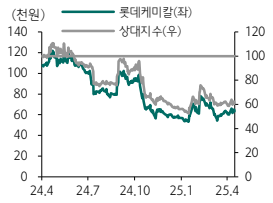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608.42
52주 최고/최저(원)	121,700/53,400
시가총액(십억원)	2,707.7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42,775.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2.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6.8
외국인지분율(%)	20.47
주요주주 지분율(%)	
롯데지주 외 38 인	54.57
국민연금공단	7.39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0,742.8	21,311.5
영업이익(십억원)	(209.1)	465.6
순이익(십억원)	(553.3)	18.4
EPS(원)	(11,441)	897
BPS(원)	326,252	330,20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9,946.4	20,430.4	19,813.0	20,778.7
영업이익	(347.7)	(894.1)	(188.5)	370.1
세전이익	(452.3)	(2,258.1)	(500.8)	114.5
순이익	(50.0)	(1,710.5)	(356.7)	81.5
EPS	(1,194)	(39,988)	(8,338)	1,906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128.31)	(1.50)	(7.59)	33.21
PBR	0.42	0.18	0.20	0.19
EV/EBITDA	20.67	41.26	11.91	8.66
ROE	(0.33)	(11.44)	(2.57)	0.60
BPS	363,366	335,527	312,086	325,152
DPS	3,500	2,000	2,000	2,0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1Q25 영업이익 컨센 부합. LEM 제외 시 -800억원 수준

1Q25 영업이익은 -1,266억원(QoQ 적지, YoY 적지)으로 컨센(-1,313억원)에 부합했다. 지배순이익은 -1,9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분법손실 -313억원과 이자비용 영향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영업적자 -460억원을 제외하면 화학 사업의 적자는 약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전분기 대비 영업 적자 축소 배경은 롯데첨단소재의 대폭 개선과 기초소재의 실적 개선 영향이다. 롯데첨단소재 영업이익은 729억원(QoQ +432억원)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환율 효과와 해상운임 하락, ABS의 스프레드 개선 덕분이다. Olefin 영업이익도 -767억원(QoQ +412억원)으로 개선되었다. 롯데GS화학의 BD 개선에 따른 호전과 본사의 적자폭 축소 덕분이다. LC Titan의 적자도 QoQ +236억원 줄어들었다. 가동률 최적화와 저가 납사 투입 영향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고객사 재고조정에 따른 저율 가동 영향으로 영업이익 -460억원(OPM -29%)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2Q25 정기보수 영향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실적 예상

2Q25 영업이익은 -1,231억원(QoQ 적지, YoY 적지)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추정한다. 저가 납사 투입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4/12일부터 65일 간 진행되는 대산공장의 정기보수, 3/31일부터 46일 간 진행되는 미국 LC USA의 MEG 정기보수 영향으로 기초소재는 영업이익 -8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익을 예상한다. 다만, LC Titan은 정기보수가 없어 영업이익 -275억원(QoQ +132억원)으로 적자 축소가 가능하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은 고객사의 재고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적자폭을 소폭 줄여 나갈 전망이다.

3Q25 흑자전환 시도. 중장기적으로 ECC 대비 경쟁력 살아날 것

Neutral, TP 7.5만원을 유지한다. 최근 저가 납사 투입 효과에도 불구, 2Q25는 대산 공장 중심의 대규모 정기보수로 실적 개선 효과가 희석된다. 하지만, 최근 미-중 관세 전쟁의 완화, 저가 원료 투입 효과, 아로마틱과 LC Titan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최적화 등을 감안하면 3Q25 흑자전환 가능성은 높아졌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부 전력수요 증가와 LNG 수출, 2030년경 미국 원유/가스 생산량 Peak Out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 천연가스 가격 강세는 불가피하며 이는 한국 NCC의 미국 ECC 대비 경쟁력 열위 국면 탈피의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는 Asset Light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EG 생산법인 LCLA 지분 40%를 활용한 6.6천억원의 PRS 계약을 맺었고, 인니 자회사 LCI 지분 49% 중 25%를 대상으로 PRS 계약을 체결해 6.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컨콜에서는 LCI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암시했다. 인니 LINE PJ 이후 Cash Flow 흑자전환 가능성도 언급했다. 흑자 전환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투자의견 변경을 검토하겠다.

2025년 05월 1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로보티즈 (108490)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수혜 실적으로 증명

Not Rated

현재주가(5.13) **37,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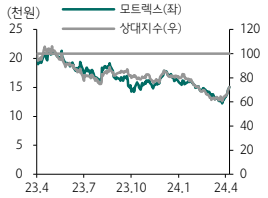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731.88
52주 최고/최저(원)	42,350/16,210
시가총액(억원)	4,981.2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13,212.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59.2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268.0
외국인지분율(%)	4.82
주요주주 지분율(%)	
김병수 외 2 인	25.75
LG전자	7.28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456	N/A
영업이익(억원)	41	N/A
순이익(억원)	16	N/A
EPS(원)	120	N/A
BPS(원)	7,447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24	259	291	300
영업이익	(9)	(22)	(53)	(30)
세전이익	(3)	(16)	(26)	(50)
순이익	7	(3)	(14)	(30)
EPS	65	(22)	(107)	(240)
증감율	흑전	적전	적지	적지
PER	380.0	(1,022.7)	(286.0)	(96.9)
PBR	4.0	3.1	4.0	3.1
EV/EBITDA	0.0	0.0	0.0	0.0
ROE	1.0	(0.3)	(1.4)	(3.3)
BPS	6,186	7,151	7,607	7,622
DPS	0	0	0	0

Analyst 최재호 chlwogh2002@hanafn.com
RA 손호성 hss93@hanafn.com

중국도 로보티즈 선택, 액추에이터 성장 가속화될 전망

로보티즈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Top-Tier 수준의 액추에이터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보행로봇 등 업계 전반 동사 제품의 확장 여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4년 약 32.8억달러에서 2032년 약 660억달러로 CAGR 4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이 동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올해부터 고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침투다.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일부에 동사의 액추에이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니트리는 올해부터 본격 양산 시작을 통해 연간 약 1천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격 양산 진행에 따라 관련 수혜가 예상된다. 두번째는 동사의 2대주주 LG전자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사업화 착수다. 동사는 지난 4월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출시했으며, 이를 LG전자에 1차 납품 완료 이후 2차 납품을 준비 중이다. 추가적으로 LG전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동사의 액추에이터 및 매니플레이터 등을 활용해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글로벌 가전 Top-Tier LG전자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B2C까지 비즈니스 확장이 전망된다.

1Q25 Review: 예상보다 빠른 흑자 턴어라운드, 실적은 상저하고

로보티즈의 1Q25 실적은 매출액 101억원(+22.6%, YoY), 영업이익 8억원(흑자전환, YoY)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흑자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우선 1) 액추에이터는 해외 고객사 수요 확대 및 신규 고객사 확보(약 20개 이상)로 수출 매출액이 95억원(+18.0%, YoY)으로 성장을 이끌었으며, 액추에이터 매출액은 100억원(+20.8%, YoY)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액 비중의 98.0%를 차지했다, 2) 자율주행로봇은 올해부터 기존 구독 모델에서 제품 판매로 전략을 수정했으며, 올해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연간 약 200대)의 일부가 출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2억원(+356.1%, YoY)을 기록했다. 동사의 특징 중 하나는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의 생산을 대부분 내재화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 1Q25 기준 61.7%의 높은 GPM을 형성하고 있으며, 액추에이터 본격 양산 물량 확대 및 높은 수익성의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BEP를 상회하는 매출액 달성 이후 1Q25 OPM은 8.1%(+19.2%p, YoY)을 달성했다. 본격적인 수익성 상승 구간이다.

2025년 매출액 458억원, 영업이익 45억원 전망

로보티즈의 2025년 실적은 매출액 458억원(+52.6%, YoY), 영업이익 45억원(흑자전환, YoY)을 기록하며, 1Q25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1) 액추에이터 부문은 해외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 및 본격 양산 레벨 진입으로 매출액 400억원(+35.3%,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2) 자율주행로봇 부문은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물량만 가정해도 매출액 58억원(+1,165%,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5월부터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한 오픈매니플레이터-Y 출시 효과에 따라 실적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7월부터 본격

양산을 예정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적은 포함시키지 않은 보수적인 추정이다.

2025년 5월 1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바이오에프디엔씨 (251120)

스킨부스터로 다진 체력, 패치와 PDRN으로 넓히는 외형

Not Rated

현재주가(5.13) **14,66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31.88
52주 최고/최저(원)	17,740/12,260
시가총액(십억원)	127.5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8,695.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5
외국인지분율(%)	9.57
주요주주 지분율(%)	
모상현 외 10 인	31.52
지보단 사	8.4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9	23
영업이익(십억원)	6	8
순이익(십억원)	6	8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12	16	16	16
영업이익	3	5	5	5
세전이익	3	5	7	5
순이익	3	4	6	5
EPS	393	508	642	518
증감율	17.7	29.3	26.4	(19.3)
PER	0.0	33.5	22.0	26.7
PBR	0.0	2.6	2.0	1.8
EV/EBITDA	0.0	18.5	13.4	12.3
ROE	18.3	8.2	9.5	7.1
BPS	2,148	6,437	7,085	7,604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서지혁 jhyukseo@hanafn.com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 설계 및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유효물질, 추출물,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바이오소재 기업이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식물세포 유래 원료(PCX), 성장인자 기반 스킨부스터(GFX), 마이크로니들 패치 등으로 구성되며, 주력 제품인 스킨부스터에는 EGF(상처 회복, 피부 재생)와 FGF(진피층 재생, 콜라겐 합성 촉진) 등 고기능성 인자가 포함된다. 독자 개발한 고주파 자극기(SMART-RC²)와 CRISPR/Cas9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세포주를 설계하고, 대량 배양까지 내재화한 수직계열 생산 체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스위스 지보단과의 향료소재 공동개발, 극지 식물 기반 화장품 등 고부가 신규 사업도 병행하며 외형 확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전개 중이다.

식물세포 기술 기반 수익성 위에 얹히는 다층 포트폴리오 확장 구간

①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의 구조적 수익성 확보: 동사는 약 250종의 식물세포주를 확보하고 동결보존 시스템을 구축해 배양 원가를 사실상 제거했다. 반복 생산이 가능한 단일 세포주 구조는 고정비 부담 없이 수익성 체력 개선이 가능한 구조다. 스킨부스터는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며, OPM 40~60% 수준의 고수익률을 유지 중이다. 45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도 확보돼 있어 설비 및 제품 투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갖췄다. **②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진입한 니치 고성장 시장:**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주름 개선을 타깃으로 한 홈케어 제품으로, 여드름 중심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구조다. 식물세포 유래 성장인자를 담은 하이드로겔 기반 니들은 피부 침투와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단가는 3천원~1만원 수준이다. 현재 화순공장에서 연 120만개 1개 라인을 운영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국향 수출을 기점으로 올해 약 30억원의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 시장 반응에 따라 최대 720만개까지 생산능력 확장이 가능한 구조다. **③ 식물성 PDRN 상용화가 열어줄 고기능 원료 시장:** PDRN은 재생·항염 효과를 갖춘 고기능 원료로, 식물성 전환 수요에 올라탄 소재다. 동사는 관련 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미세포 기반 기술은 한국콜마와 공동 개발을 통해 시제품까지 확보한 상태다. 현재 8개 세포주에서 수율 개선과 양산 프로토콜 정립이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제품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사 브랜드와 OEM·ODM을 병행하는 다층적 포트폴리오 전략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25년 Preview, 외형 성장과 수익성 레벨업 구간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23억원(+39.1% YoY), 영업이익 78억원(+61.1% YoY, OPM 35%)이다. 스킨부스터는 병의원향 채널 확대와 함께 안정적 현금창출 기반을 유지하며,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중국향 수출 개시를 기점으로 외형 성장을 견인한다. 식물성 PDRN은 2026년부터 적용이 가시화되며, 원료 내재화를 통한 실적 레벨업 구조에 편입된다. 제품군 확장·기능성 원료 상용화·생산 역량 강화가 맞물리는 구간이다. 실적과 체질이 동시에 바뀌는 흐름 속에서 구조적 리레이팅 시그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5월 14일 | 산업분석_Industry

2차전지

AMPC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05월 13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Neutral | TP 336,000원 | CP 312,000원

삼성SDI(006400)
Neutral | TP 210,000원 | CP 170,900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IRA 30D) 변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IRA Section 30D, 친환경차 구매 시 $7,500 세액공제 혜택 부여)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세부 규정(광물 부가가치 관련)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그리고 본격 집행이 시작된지 약 2년이 지난 2025년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위원들이 해당 법안 조기 종료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첫 발의안이므로 향후 변화 가능성 있지만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이를 토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기존 2032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되고, 2026년부터는 보조금 대상도 크게 축소된다(미국 시장에서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 20만대 미만 OEM 한정). 따라서, 2026년부터는 누적 전기차 판매대수 20만대 초과 기업들인 Tesla, Ford, GM 등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203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중고 전기차 세액공제(IRA 25E($4,000))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IRA 45W($7,500)) 역시 7년 앞당겨져 2025년말까지만 유지된다. 미국의 경우 전기차 구매의 약 50%가 리스 형태이므로,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시 리스 비용 상승에 따른 수요 타격이 예상된다.

생산 보조금(IRA 45X) 적용 기간 단축과 FEOC 규정 직접 적용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된 IRA Section 45X(AMPC: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변화가 있지만 우려 대비 타격이 약할 것으로 판단한다.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만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단축됐다(2031년까지 '착수'가 아닌 '완공'된 프로젝트만 혜택). 한편, AMPC는 직접적인 FEOC(우려외국집단) 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발의안은 AMPC에도 FEOC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1) FEOC로부터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등)을 받는 경우. 2) 납세자가 FEOC인 경우. 3) FEOC와의 라이선스 수익 1백만 달러 초과인 경우. 이에 해당 시 AMPC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 부품 및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제휴를 재검토하는 등의 공급망 China De-risking 기조가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AMPC 리스크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가 하방 리스크 제한적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어느 수준까지의 리스크를 반영했느냐다.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구매보조금 폐지 및 생산보조금 유지'라는 가정하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수요 보조금이 없더라도 배기가스 규제 및 자율주행 경쟁으로 인한 공급자 주도의 전기차 시장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연평균 10% 대의 시장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최근 낮아진 실적 추정치를 통해 현재 컨센서스에는 수요 보조금 폐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AMPC의 경우 실적 컨센서스는 유지를 반영해 왔으므로 폐지 시 리스크 컸으나 대부분 조항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법안은 초안이므로 향후 협상을 통한 양보 고려해 가장 공격적인 Greenlash 기조가 담겨있을 터인데도 AMPC 조정 내용이 1년 단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금 유입이 가장 필요한 2025년-2028년의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이슈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셀 메이커들의 적정가치 하단 밴드(LG에너지솔루션 기준 70조원대)가 무너질 만한 새로운 논리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Short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한다.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2025년 5월 14일 | Global Equity

토요타(7203.JP)

FY2026 가이던스 영업이익 -21% 하향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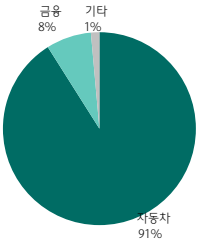
TP(컨센서스)	3,001.00
CP(05.13)	2,850.00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자유소비재
주요 영업	자동차
홈페이지	www.toyota-global.com
시가총액(십억JPY)	45,015.7
시가총액(조원)	431.5
52주최고/최저()	3479/2183
주요주주 지분율(%)	
토요타자동차	24.51
GOVT PENSION INVST FUND JAPAN	5.37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13.8	1.3	(19.6)
상대	2.6	1.3	(20.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십억JP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8,037	48,037	48,921	50,737
영업이익	5,353	4,796	4,444	4,615
순이익	4,945	4,765	3,911	4,042
EPS(JPY)	365.9	359.6	296.9	316.0
EPS(YOY, %)	103.9	(1.7)	(17.4)	6.4
ROE(%)	15.8	13.6	10.1	10.0
PER(배)	10.4	7.3	9.6	9.0
PBR(배)	1.5	1.0	1.0	0.9
배당률(%)	2.0	3.4	3.4	3.6

자료: Bloomberg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

FY2025 실적: 판매 -1% (YoY), 영업이익 -10% (YoY)

FY4Q25(2025.1~3) 토요타 그룹의 연결 기준 도매판매는 236.2만대(+10% (YoY))였고, 지역별로는 일본 53.7만대(+48%), 북미 66.0만대(+1%), 유럽 30.6만대(-1%), 아시아 46.0만대(+8%), 기타 40.0만대(+2%)였다. 참고로 토요타/렉서스만의 소매판매는 5% (YoY) 증가한 251.6만대, 토요타 그룹 전체(다이하쓰/히노 포함)의 소매판매는 271.6만대(+8%)였다. 토요타/렉서스 소매판매 중 친환경차의 판매는 123.3만대(+21%), 비중은 49.0%(+6.6%p (YoY))였다. 이 중 HEV가 115.2만대(+22% (YoY), 비중 45.8%)였고, 전기차는 총 8.1만대(PHEV 4.6만대, BEV 3.5만대, FCEV 0만대)로 전기차 비중은 3.2%(+0.3%p)에 불과했다. FY2025(2024.4~2025.3) 기준 도매판매는 936.2만대(-1% (YoY)), 토요타/렉서스만의 소매판매는 1,027.4만대(-0%), 토요타 그룹 전체는 1,101.1만대(-1%)였다.

FY4Q25 토요타 그룹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은 ¥12.4조(+12%)/¥1.12조(+0%)/¥0.67조(-33%), 영업이익률은 9.0%(-1.0%p (YoY))을 기록했다. 지역별 영업이익률은 일본 14.7%(-1.8%p)/북미 -1.3%(-1.1%p)/유럽 2.4% (-4.5%p) /아시아 9.6%(-0.9%p)/기타 6.3%(+6.3%p)였다. 중국 합작법인의 영업이익은 판매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금융 부문은 대출 잔액의 증가 등으로 7% (YoY) 증가했다. FY2025 기준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은 ¥48.0조(+7%)/¥4.80조(-10%)/¥4.77조(-4%), 영업이익률은 10.0%(-1.9%p (YoY))을 기록했다. FY2025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가격 인상,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두 자리 수를 유지했다.

FY2026 글로벌 판매 목표는 980만대로 상향했지만 이익 예상은 하향

토요타의 FY2025 수익률은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인 10.0%를 달성했고, 순이익률은 가이던스인 9.6%를 소폭 상회한 9.9%를 기록했다.

FY2026(2025.04~2020.03) 토요타 그룹의 글로벌 판매 목표는 980만대(+4% (YoY))이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목표는 ¥48.5조(+1%)/¥3.80조(-21%)/¥3.10조(-35%)이다. 매출액 목표는 상향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엔화 강세 등을 반영하여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예상을 하향 조정했다. 특히, 관세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은 ¥1,800억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박스권 주가흐름 예상

토요타 주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려로 하락했으나, 낮아진 Valuation과 더불어 주주환원 강화와 자율주행 및 SDV 투자 확대, 그리고 하이브리드차의 성장 등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면서 회복하고 있다. 토요타는 전년 대비 5엔 증가한 주당 95엔의 배당을 발표했고, 미국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자동차를 제공하는 협업도 체결했다. 견조한 펀더멘털과 관세 불확실성이 상방-하방을 제한하며 당분간 박스권 주가흐름을 예상한다.

2025년 05월 14일 | Global Equity

닛신식품 홀딩스 (2897.JP)

1Q25 Re: 시장 기대치 부합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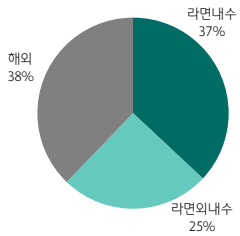
TP(컨센서스)	4,120 JPY
CP(05.13)	3,194 JPY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식품
홈페이지	www.nissin.com/en_jp
시가총액(십억JPY)	966.5
시가총액(조원)	9.3
52주최고/최저(JPY)	4488/2866.5
주요주주 지분율(%)	
ANDO FOUNDATION	7.84
미쓰비시상사	5.4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4	(17.6)	(19.3)
상대	(4.7)	(17.6)	(20.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십억 JP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32.9	776.6	799.2	825.4
영업이익	73.4	74.4	77.6	82.0
순이익	54.2	55.0	55.3	58.8
EPS(JPY)	178.2	184.4	193.0	206.8
EPS(YoY, %)	21.2	3.5	4.6	7.2
ROE(%)	11.7	11.4	11.5	11.8
PER(배)	23.6	16.6	17.0	15.9
PBR(배)	2.6	1.9	1.9	1.8
배당률(%)	1.6	2.3	2.3	2.4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5 Re: 시장 기대치 부합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943억엔(YoY 5.6%), 139억엔(YoY 188.9%)을 기록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내수는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으며, 해외는 미국의 수익성 감소를 그외 지역에서의 실적 호조가 상쇄했다. ① 라면 내수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99억엔(YoY 4.9%), 45억엔(YoY 50.7%)을 시현했다. 컵라면과 봉지라면 모두 견조한 판매를 시현했다. ② 내수 기타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472억엔(YoY 3.7%), 16억엔(YoY 105.6%)을 기록했다. 'KOIKEYA'와 'YORK' 브랜드 중심의 견조한 매출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높은 손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③ 미주(미국+멕시코+브라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30억엔(YoY 4.4%), 44억엔(YoY 32.4%)을 시현했다. 미국 매출은 경쟁 심화에 따른 물량 감소 기인해 YoY -4% 감소했다. 브라질 매출은 생산시설 보수 완료 및 연초 판가 인상 기인해 YoY 38% 증가했다. ④ 중국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99억엔(YoY 13.3%), 31억엔(YoY 11.6%)을 기록했다. 홍콩은 봉지라면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했으며, 본토는 컵라면 위주 성장세를 시현했다.

FY 2026 연간 가이던스 발표

다음 회계연도인 FY 2026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매출액은 8,100억엔(YoY 4.3%), 영업이익은 756~796억엔(YoY 1.7%~7.0%)을 제시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는 반영된 수치이며,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의 영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이다. 미국 내 수입 규모는 크지 않아 관세 영향은 원재료 영향 범위인 10억엔 이하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 11.4% 수준인 ROE를 2030년까지 15%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억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38% 수준인 주주환원율도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국내 및 해외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 해외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모두 신공장 건립을 계획중이다. 향후 유럽 대륙 진출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도 밝혔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5/12	190,100	198,500	4.42%	• 1Q25 Review 매출액 17.6조원(YoY +42.0%), 영업이익 7.4조원(YoY +15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신한지주 (055550.KS)	5/12	50,700	51,800	2.17%	• 1분기 그룹 CET 1 비율은 13.27%로 전분기대비 21bp 상승해 경쟁사보다도 큰폭 상승 • 올해 연간 순익 12.8% 증익 예상. 대형은행지주사 중 이익 증가 폭 가장 클 전망
이마트 (139480.KS)	5/12	93,500	84,800	-9.30%	• 4Q24 Review 매출액 7.2조원(YoY -1.0%), 영업손실 771억원(YoY 적자전환) 기록 • 하반기부터 G마켓 관련 손실과 PPA 상각비 제거 될 전망
SK가스 (018670.KS)	5/12	232,500	225,000	-3.23%	• 1Q25 Preview 매출액 2.1조원(YoY +21.2%), 영업이익 1,136억원(YoY +52.2%) 전망 • SMP 4월 들어 소폭 상승했으며 시차를 두고 여름철까지 우상향 흐름 예상
계룡건설 (013580.KS)	5/12	25,950	24,950	-3.85%	• 미국 현지 사업 비중 작고, 주요 자재 미국 수입 의존도 높지 않아 관세 리스크 낮아 •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건립 대선 공약 기대감 유효
실리콘투 (257720.KQ)	5/12	42,650	38,900	-8.79%	• 1Q25 Preview 매출액 2,027억원(YoY +35.0%), 영업이익 391억원(YoY +33.0%) 전망 • 미국시장 성장세로 전환, 유럽과 중동 등으로의 기회 요인 확대될 것으로 기대
와이지엔터 (122870.KQ)	5/12	74,400	72,500	-2.55%	• 1Q25 Review 매출액 1,002억원(YoY +14.7%), 영업이익 95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하반기 블랙핑크 컴백 효과 및 추가 공연 일정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 유효
쏠리드 (050890.KQ)	5/12	7,310	7,180	-1.78%	• 우수한 실적에도 PBR 역사적 저점, 올해 5G 주파수 경매 이슈에 주가 상승 기대 •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와 더불어 신규 주파수 투자 수혜 가능
디오 (039840.KQ)	5/12	20,700	20,700	0.00%	• 중저가 임플란트 신제품의 25년 2분기 말 국내 출시 및 2026년 중국 출시 예정 • 26년 중국 VBP 2차 시행과 함께 중저가 세그먼트의 성장세 지속 기대
DI프레시웨이 (051500.KQ)	5/12	25,350	25,450	0.39%	• 1Q25 Review 매출액 7,986억원(YoY +9.2%), 영업이익 106억원(YoY +0.8%) 기록 • 온라인 채널 고객사 빠르게 증가 중이며, 아파트/군 급식 등 신규 수주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27%	-3.48%p	+9.37%	+0.2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한미약품 (128940.KS)	5/12	271,500	277,000	2.03%	• 1Q25 Review 매출액 3,909억조원(YoY -3.2%), 영업이익 590억원(YoY +23.0%) 기록 • 6월 ADA(미국 당뇨 학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다수의 R&D 모멘텀 보유
파마리서치 (214450.KQ)	5/12	401,500	398,000	-0.87%	• 올해 유럽 주요국 내에 리쥬란 출시 및 미국 시장에서 리쥬란 코스메틱 마케팅 강화 예정 • 내국인, 외국인 리쥬란 수요 및 의료 관광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전망
한화솔루션 (009830.KS)	4/28	29,800	33,700	13.09%	• 주택용 에너지 사업 영업이익 1,292억원(매출액 약 6천억원, OPM +22%)으로 대폭 개선 • 내부 수요 성장 감안 시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 감소와 가격 반등 필연적
SK하이닉스 (000660.KS)	4/14	180,800	198,500	9.79%	• 1Q25 Review 매출액 17.6조원(YoY +42.0%), 영업이익 7.4조원(YoY +158.0%) 기록 • 불확실한 수요와 업황 속에서도 HBM을 필두로 DRAM 경쟁력 입증 완료
KT&G (033780.KS)	4/14	105,600	115,700	9.56%	• 25년 자사주 약 1.3조원 매입 소각과 약 2.4조원 규모 배당 이행 전망 • 국내 NGP 매출액 YoY 증가 흐름 및 점유율 상승세 지속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4/1	627,000	804,000	28.23%	• 1Q25 Review 매출액 5.5조원(YoY +278.4%), 영업이익 5,608억원(YoY +3,057.0%) 기록 • 하반기 K9 자주포 및 천무의 인도 지속 고려, 高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크래프톤 (259960.KS)	4/1	334,500	369,500	10.46%	• 1Q25 Review 매출액 8,742억원(YoY +31.3%), 영업이익 4,573억원(YoY +47.3%) 기록 • 라이프 시뮬레이션 신작 [인조이] 출시로 연간 150만장 판매 전망
KT (030200.KS)	4/1	49,600	51,000	2.82%	•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 피력, 2분기 또는 3분기 DPS 700원으로 상승 가능 •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 감안시, 6월 대선에도 실제 통신 요금 인하 권고 가능성 낮아
하이브 (352820.KS)	4/1	235,500	267,000	13.38%	• 1Q25 Review 매출액 5,006억원(YoY +39.0%), 영업이익 216억원(YoY +50.0%) 기록 • BTS의 6월 완전체 이후 향후 2년간 2배 이상의 증익 싸이클 예상
HD현대미포 (010620.KS)	4/1	105,400	170,600	61.86%	• 탄소포집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LCO2 운반선 수요 증가에 우호적인 발주 환경 지속 • RO-Pax선 취소로 과거 저마진 컨테이너선 물량 해소 시점 단축
이마트 (139480.KS)	4/1	81,100	84,800	4.56%	• 4Q24 Review 매출액 7.2조원(YoY -1.0%), 영업손실 771억원(YoY 적자전환) 기록 • 하반기부터 G마켓 관련 손실과 PPA 상각비 제거 될 전망
유니드 (014830.KS)	4/1	71,100	87,000	22.36%	•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감안 시,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 상승은 판가 상승의 트리거 가능 • 25년 곡물 강세 지속으로 인한 비료 수요 증가로 염화칼륨 가격 반등 가능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15%	+11.69%p	+21.33%	+12.1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3.4	13,000	14,385	10.65%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2.3	13,065	12,160	-6.93%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498400.KS)	2025.1.6	9,895	9,775	-1.21%	• KOSPI200 지수를 매수하는 동시에 KOSPI200 위클리 콜옵션을 일부만 매도하여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타겟 커버드콜 형태의 ETF • 지수 저점 확인 과정에서 타겟 배당 수익(연 17% 목표)을 통한 포트폴리오 수익 안정화 추구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3,160	35.81%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팔란티어, 샤오미,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CHD (미국 배당주)	2025.03.28	27.58	26.43	-4.17%	• 미국의 우량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추구 •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주식시장 조정 과정에서의 주가 방어와 함께, 지수 반등시 강세 동조화 흐름을 기대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03.31	1.72%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GDX (글로벌 금광기업)	2024.12.20	34.73	46.62	34.24%	• GDX는 금광 기업 ETF로 금 채굴 및 판매 관련 기업들로 구성. 금 가격과 GDX 주가의 상관계수는 0.9 수준 •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에 대한 인식 재조정,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수요 유입 전망.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세 역시 금에 대해 긍정적인 환경 조성
PAVE (미국 인프라주)	2024.07.19	38.42	41.56	8.17%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리쇼어링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 내용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독일 5월 ZEW 경제성장 예상 (E --, 4월 -14.0P) ▪ 유로존 5월 ZEW 경제성장예상 (E --, 4월 -18.5P) ▪ 미국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3월 2.4%/2.8%)	▪ 한국 4월 실업률 (E --, 3월 2.9%) ▪ 일본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4.2%) ▪ 독일 4월 소비자물가 F (E 2.1%, 3월 2.2%)	▪ 영국 1분기 GDP P (E --, 4분기 1.5%) ▪ 유로존 1분기 GDP A (E --, 4분기 1.2%) ▪ 유로존 3월 산업생산 (E --, 2월 1.2%) ▪ 미국 4월 소매판매 (E --, 3월 1.5%) ▪ 미국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0.4%) ▪ 미국 4월 광공업생산 (E --, 3월 -0.3%) ▪ 미국 4월 설비가동률 (E --, 3월 77.8%)	▪ 일본 1분기 GDP P (E --, 4분기 2.2%) ▪ 미국 4월 주택착공건수 (E --, 3월 -11.4%) ▪ 미국 4월 건축허가 (E 0.0%, 3월 0.5%) ▪ 미국 5월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 P (E --, 4월 52.2P)	▪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중국 4월 광공업생산 (E 5.8%, 3월 7.7%) ▪ 중국 4월 소매판매 (E 6.0%, 3월 5.9%) ▪ 중국 4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E 4.3%, 3월 4.2%) ▪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F (E 2.1%/2.5%, 3월 2.2%/2.4%) ▪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E --, 3월 -0.7%)	▪ 독일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0.2%) ▪ 유로존 5월 소비자기대지수 P (E --, 4월 -16.7P)	▪ 일본 4월 수출/입 (E --/--, 3월 4.0%/1.8%) ▪ 한국 5월 1-20일 수출/입 (E --/--, 4월 -5.2%/-11.8%) ▪ 영국 4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3월 2.6%/3.4%)	▪ 일본 5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E --, 4월 48.7P) ▪ 독일 5월 IFO 기업환경예상 (E --, 4월 86.9P) ▪ 유로존 5월 HCOB 제조업 PMI P (E --, 4월 49.0P) ▪ 미국 5월 S&P Global 제조업 PMI P (E --, 4월 50.2P) ▪ 미국 4월 기존주택매매 (E --, 3월 -5.9%)	▪ 한국 4월 생산자물가 (E --, 3월 1.3%) ▪ 일본 4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 3월 3.6%/3.2%) ▪ 독일 1분기 GDP F (E -0.2%, 4분기 -0.2%) ▪ 미국 4월 신규주택매매 (E --, 3월 7.4%)	▪
	▪ 미국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 미국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 미국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